

의약품 생산액 10조원 돌파

제약협회, 2004년 10조526억원으로 9.7% 증가 ... 성장률 회복

의약품 생산액이 2004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.

제약협회(회장 김정수)에 따르면, 2004년 의약품 생산액은 10조4526억원으로 2003년 9조5324억원보다 9.7% 증가했다.

증가율이 2003년 3.6%에 비해 6.1%p 높아진 것이다.

국내 제약시장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2001년 7.3% 2002년 8.6%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3년에는 성장률이 크게 위축됐었다.

2004년 생산순위는 동아제약이 4661억원으로 1위를 지켰으며 이어 한국화이자가 3348억원으로 2위, 중외제약이 3135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.

<화학저널 2005/07/01>